

아기의 청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신생아 청각 검사)를 받으시다

신생아 1,000 명 중 1~2 명은 태어날 때부터 청력에 장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기의 말과 심리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청력 장애는 아기의 외견이나 모습만 보고 알아채는 것이 어려우므로, 태어났을 때에 “청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신생아 청각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



Q 어떤 검사인가요?

단시간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가 2 종류 있습니다.

아기가 잠자고 있는 동안 작은 소리를 들려주고 뇌파를 보는 방법(자동 ABR)과 귀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를 측정하는 방법(OAE)이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통증이나 부작용도 없고 약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Pass(합격)” 또는 “Refer(정밀검사 요망)”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Q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아기의 입원 중에 실시합니다.

출산한 의료기관이 검사를 못할 경우에는 출산한 의료기관에서 소개장을 받아 출생 후 대략 1개월 이내에 검사가 가능한 산부인과 등에서 받으시다.

Q 비용이 드나요?

검사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는 검사 비용을 보조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에 문의해 주십시오.)

Q 검사 결과가 “Refer(정밀검사 요망)”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즉시 귀의 청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비인후과가 있는 지역의 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다. 이 경우 처음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상담합시다.

정밀검사를 한 결과, 귀의 청력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가급적 빨리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되면 말이나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금 태어난 아기는 귀 안에 양수 등이 남아 있거나 검사 시에 울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제대로 판정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도록 합시다.



Q 검사 결과가 "Pass(합격)"이면 괜찮은 건가요?

아기의 귀의 청력 발달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검사에서 "Pass(합격)"이란 "그 시점의 청력에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 중이염이나 볼거리 등으로 인해 나중에 청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 후에 각 지역의 △△△에서는 정기적으로 유아 건강 진찰검사 등을 통해 청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뒷면에 있는 "청력 발달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발달 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아기에게 엄마 음성이 들리나요?”

본 체크리스트는 청력과 말의 발달을 월령별로 기재한 것입니다.

각 월령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절반 이하였을 경우나 아기의 청력이나 말의 발달에 대해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이용 중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의 보건사 등에게 상담 받으록 합시다.

【3개월경】

- () 큰 소리에 놀란다
- () 큰 소리에 잠을 깬다
- () 소리가 나는 쪽을 본다

【6개월경】

- () 소리가 나는 쪽을 본다
- ()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좋아한다
- () 엄마, 아빠 등 잘 아는 사람의 음성을 구별한다



【9개월경】

- () 이름을 부르면 돌아본다
- () “까꿍”을 해 주면 좋아한다
- () 화난 음성으로 “안돼!” “덱!” 등이라고

【12개월경】

- () “주세요” “코 자자” “오세요” 등의 말을 이해한다
- () “바이바이”라는 말에 반응한다
- () 어른 말을 흉내 내려고 한다
- () 뚜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열심히

【18개월경】

- () 그림책을 읽어 달라고 한다
 - () 그림책을 보고 아는 것을 가리킨다
 - () 간단한 지시를 이해한다
- (“그 책 가지고 와” “이 쓰레기 버려” 등)



언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유아 건강 진찰검사나 청력 발달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청력을 확인합니다.